

# 대연정·사드·대통령제…쟁점마다 난타전

| 민주 경선 5차 토론회                                                                                                                              | ■대연정                                                                                                                             | ■사드                                                                                                                                   |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
|-------------------------------------------------------------------------------------------------------------------------------------------|----------------------------------------------------------------------------------------------------------------------------------|---------------------------------------------------------------------------------------------------------------------------------------|------------------------------------------------------------------------------------------------------------------------------------------------------------------------|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이 반환점을 돌고 있는 가운데 예비 주자들은 대연정 등을 비롯, 상대 후보들의 공약과 현안들을 놓고 거침없는 공세를 펼쳤다.                                                         | 文 “지금은 말할 때 아냐”<br>安 “한국당도 연정 대상”<br>李 “못 믿을 세력과 못 가”                                                                            | 文 “차기정부서 복안 있다”<br>安 “동반자 관계 얻어내야”<br>李 “철회할 지도력 필요”                                                                                  | 文 “삼권분립·지방분권 강화”<br>安 “대통령-의회 동등해야”<br>李 “제도보다 사람이 문제”                                                                                                                 |
| 19일 KBS가 주최한 제5차 민주당 대선 주자 합동 토론회에서 문재인 전 대표는 “민주당의 정권교체보다 적폐세력 정당과 연정할 데니 밀어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지금은 대연정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안희정 충남지사가 물어보았다.  | 나”고 반박했다.<br>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극복 해법으로 문 전 대표는 “책임총리제 도입, 삼권분립 강화와 국회 비판 권한 확대, 사법부 독립 강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통해 자연스레 이뤄진다”고 밝혔다.              | 다. 사드를 다음 정부로 넘기면 외교로 양쪽을 붙잡을 복안이 있다”고 말했다.<br>안 지사는 “대한민국의 국방안보는 한미동맹에 기초한다”며 “중국에는 한미동맹이 중국을 적대시하지 않는다고 설득해 동반자 관계를 얻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대선 레이스에서 부동의 선두를 지켰으나 호감도 조사에서는 안희정 충남지사가 문 전 대표를 앞섰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
| 이재명 성남시장도 “대한민국이 적폐에 찬 것은 법이 없어서 생겼느냐. 문제는 법을 운영하는 권력자가 운영을 제대로 안 한 것”이라며 “개혁·통합·민생을 제일 많이 말한 게 새누리당인데, 그 약속을 믿고 연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 안 지사는 “의회의 지도력이 대통령과 동등하게 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정당정치가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제도가 문제였다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은 제왕적이지 않았나. 시스템이 아닌 사람 문제”라고 언급했다. | 이 시장은 “사드 배치는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군비경쟁을 시켜 중미 간 군사충돌이 벌어지면 미사일이 한반도로 날아온다”며 “사드 철회를 미국이 싫어하겠지만 이를 밀어붙일 수 있는 신념과 지도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여론조사 전문업체 한국갤럽은 19일 지난 14~16일 전국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2017년 1월말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지역·성·연령별 가중값 부여)에서 문 전 대표의 지지율은 33%, 안 지사는 18%로 각각 집계됐다고 밝혔다. |
| 이에 안 지사는 “국가개혁과제와 적폐청산에 합의해야 대연정 한다는 것인데 자꾸 자유한국당과 연정한다는 식으로 몰아붙인다. 구태정치”라며 “당연히 한국당도 연정 대상이고 대화를 해봐야 할 것이 아니                             | 사드로 고인 한미-한중관계 해법과 관련, 문 전 대표는 “한미동맹이 안보의 근간임을 부정할 수 없고 경제적으로 중국이 중요하다”며 “미국도 중국도 붙잡아야 한                                         | 자극적인 언사로 상대 후보를 거세게 몰아붙이기도 했다.<br>안 지사는 “문 전 대표 캠프는 당을 뛰 어넘은 가장 강력한 조직으로, 제왕적 대                                                       |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1%포인트 오른 10%로 3위를 차지했고, 민주당 이재명 성남시장은 8%로 지난주와 같았다.                                                                                                     |

## 자강이 먼저냐 연대가 먼저냐…安 vs 孫·朴 충돌

### 국민의당 경선 첫 토론회 위원장 합의·사드 등 온도차

국민의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연대론’을 놓고 충돌했다.

지난 18일 열린 첫 TV토론에서 안철수 전 대표는 “정치인과 정당은 국민의 평가를 받은 뒤 선거 이후에 세력을 결집해 정국 운영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등 다른 정치세력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 “그것은 오히려 스스로 힘을 빼는 일”이라며 “스스로를 못 믿는데 어떻게 국민에게 믿어달라 하느냐”고 자강론을 펼쳤다.

이에 맞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국민의당이 39석이다.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중도 통합, 그리고 개혁적인 보수, 합리적 보수, 이런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대통령 후보여야 한다”며 “경관에 참여할 수 있다는 약속을 하고 가능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선(先) 연대론을 주장했다.

박주선 국회부의장도 “집권을 하려면 국민의당을 갖고는 어렵다는 여론이 많이 있다”면서 “저는 부패, 폐관, 국정농단 세력을 제외하고 옳고 바른 나라를 만들겠다는 이념에 동참하는 모든 개혁세력은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부의장은 19일에도 “대연합의 거부 는 다자구도를 바라는 문재인 전 더불어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19일 서울 마이크업먼트에서 열린 대선 출정식에서 출마 선언을 마친 뒤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민주당 대표와 부활을 꿈꾸는 박근혜 세력을 도와주는 것”이라며 ‘대연합 맞장도론’을 제언했다.

대북 문제에도 이견을 나타냈다. 안 전 대표는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조건 테이블을 만들고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논의하자”고 말했다.



국민의당 대선주자인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에서 대선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그러나 손 전 대표는 “개성공단 가동을 재개하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는 길을 찾는 것을 바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부의장은 “북한의 태도 변화 가능성도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개성공단이 나 금강산 관광 재개는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일본군 위안부 합의 논란을 놓고도 안

전 대표와 손 전 민주당 대표는 재협상에 방점을 찍었지만, 박 부의장은 국가 간 합의를 기본적으로 존중하면서 추가 협상할 것을 주장해 온도차가 드러났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를 놓고 국민의당 주자들은 반대 입장보다는 주변국과의 협의를 통해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 ‘지지’는 문재인·‘호감’은 안희정

갤럽 조사…민주 지지율 46% 최고·홍준표 비호감 1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대선 레이스에서 부동의 선두를 지켰으나 호감도 조사에서는 안희정 충남지사가 문 전 대표를 앞섰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한국갤럽은 19일 지난 14~16일 전국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2017년 1월말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지역·성·연령별 가중값 부여)에서 문 전 대표의 지지율은 33%, 안 지사는 18%로 각각 집계됐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1%포인트 오른 10%로 3위를 차지했고, 민주당 이재명 성남시장은 8%로 지난주와 같았다.

황 권한대행 대선 범보수 진영에서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2%,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1%의 지지율을 받았다.

또한, 갤럽이 지난주 조사에서 1% 이상 지지율을 기록한 8명을 대상으로 호감도 조사를 한 결과 ‘호감이 간다’는 응답은 안 지사(56%), 문 전 대표(47%),

대선 주자 호감도

한국갤럽이 14~16일 전국 성인 1,004명을 전화조사한 인터뷰 방식으로 조사해 17일 발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 ±3.1%p)

|     | 호감이 간다 | 호감이 안간다 |
|-----|--------|---------|
| 안희정 | 56%    | 37%     |
| 문재인 | 47     | 50      |
| 이재명 | 39     | 53      |
| 안철수 | 38     | 57      |
| 심상정 | 31     | 57      |
| 유승민 | 22     | 69      |
| 홍준표 | 12     | 81      |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www.nesdc.go.kr)를 참조

자료/한국갤럽

연방뉴스

이 시장(39%), 안 전 대표(38%)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지난주보다 3%p 오른 46%로 창당 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국민의당과 한국당(이상 12%), 정의당(5%)은 나란히 1%포인트씩 올랐고 바른정당(4%)은 1%포인트 하락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바른정당 본격 경선레이스

유승민·남경필 토론회…호남→영남→대전→수도권 순회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지난 18일부터 모두 4회에 걸쳐 국민정책평가단 투표를 위한 권역별 정책토론을 벌이는 등 본격적인 대통령선거 경선레이스를 시작했다.

두 후보가 참여한 호남권 토론회는 18일 광주 MBC에서 녹화한 뒤 19일 오전 방송됐다. 이어 오는 21일에는 부산 국제여객터미널 컨벤션센터에서 영남권 토론회를 개최한다. 또 충청·강원권 토론회는 23일 대전ICC호텔에서 열리며, 서울·수도권 토론회는 25일 오전

KBS가 생중계한다.

권역별 인구비례로 선발한 국민정책평가단 4000명은 후보 토론회 시청 후 두 사람 중 한 명에게 투표하게 된다. 이어 26~27일 약 3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고, 28일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후보 지명대회를 연다.

후보 지명대회에서는 당원 선거인단 3000명이 투표에 참여하고, 국민정책평가단 투표 결과와 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해 최종 대선 후보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홍준표 잇단 ‘설화’

“자살 검토” 발언 논란…한국당 오늘 후보 4명 압축

자유한국당 김관용 경상북도지사, 김진태·안상수·원유철 의원, 이인제 전 최고위원, 홍준표 경상남도지사(이상 가나다순) 등 대선주자 6인은 19일부터 시작된 경선 2차 컷오프에 대비했다.

이들은 전날 경선 1차 컷오프를 통과한 뒤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에서 고마움을 표하며 지지자와 적극적인 소통에 나선 뒤 이날부터 시작되는 2차 여론조사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한국당은 20

일 본경선 진출자를 4명으로 압축한다.

한편 한국당 대선 후보로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경남지사가 지난 18일 자신이 ‘성안촌 리스트’ 사건으로 대법원에 상고된 것과 관련, “없는 사실을 갖고 또다시 뒤집어씌우면 노무현처럼 자살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말해 파문이 일고 있다. 홍 지사는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 경,공매 컨설팅

### 경매 추천물건

- ★ [공장] 광주 광산구 옥동 평동초등학교 인근 일반공업지역 토지 1,653㎡ 건물 1,384㎡ 감정가 11억9백 ▶ 최저가 7억8천
- ★ [건물] 전남 순천시 낙안면 이곡리 교육시설 헹개스트하우스 낙안읍성인근 토지 13,179㎡ 건물 1,302,76㎡ 감정가 16억2천 ▶ 최저가 7억2천8백
- ★ [의료시설] 전남 장성군 삼서면 대곡리 요양병원 NPL가능 토지 11,546㎡ 건물 5,734㎡ 감정가 48억8천6백 ▶ 최저가 21억8천9백
- ★ [공장] 광주 북구 양산동 해태제과 광주공장 남측 일반공업지역 토지 3,653㎡ 건물 3,971㎡ 감정가 39억2천2백 ▶ 최저가 27억4천5백
- ★ [임야] 전남 화순군 동북면 연월리 97,129㎡ 묘지조성 및 납골당 사찰용지 최적합. 감정가 7억5천만 ▶ 최저가 5억3천5백만
- ★ [대지] 전남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4,494㎡ 계획관리지역 무인텔신축 최적합지 감정가 10억3천3백 ▶ 최저가 5억7천8백
- ★ [사무실] 전남 나주시 보산동 창고 및 사무실 토지 1,445㎡ 건물 301㎡ 감정가 3억3백 ▶ 최저가 2억1천1백
- ★ [장례식장] 광주 서구 매월동 토지 9,625㎡ 건물 4,506㎡ 감정가 118억6천만 ▶ 최저가 118억 6천만
- ★ [무인텔] 광주 광산구 쌍암동 객실 28개 토지 1,373㎡ 건물 1,908㎡ 감정가 45억 1천만 ▶ 최저가 31억5천만

### 수익형 추천

- ★ [건물] 광주 서구 동천동 동림2지구내 중심상권 아파트 상가 밀집지역 하남대로변 위치좋은 지하1층~지상5층 대지 573㎡ 건물 2,215㎡ 매매 41억 (보3억3천만 월1천7백80만 포함)
- ★ [건물] 북구 신용동 첨단2지구 아파트밀집지역 메인상권 4층건물 대지 780㎡ 건물 1,830㎡ 매매 48억 (보5억3천 월2천2백 포함)
- ★ [건물] 서구 금호동 아파트밀집지역 사우나·헬스 6층건물 대지 1,896㎡ 건물 1,320㎡ 1층 점포다수 고수익형 매매 54억
- ★ [건물] 광산구 공항에서 송정역 대로변 지상6층 병원건물 (한방·요양병원적합) 대지 958㎡ 건물 2,570,58㎡ 매매 35억
- ★ [건물] 북구 용두동 양산사거리부근 대로변 메디컬센터 입점중 대지 929㎡ 건물 895㎡ 매매 63억
- ★ [건물] 동구 동명동 사우나상가5층건물 위치좋은 대로변접 현성업종 대지 452㎡ 1,464㎡ 매매 17억 (용5억포함)
- ★ [건물] 광주 서구 동천동 동림2지구내 중심상권 아파트 상가 밀집지역 위치좋은 지상5층건물 대지 476㎡ 건물 1,236㎡ 매매 24억 (보2억7천만 월1천1백5십만 용6억9천만 포함)
- ★ [건물] 광주 광산구 신가동 지하1~5층 상가건물 중앙아동병원 인근 대지 277㎡ 건물 604㎡ 한방·요양병원최적지 매매 37억

### 투자 추천 물건

- ★ [토지] 광주 북구 삼각동 31사단 정문 인근 1,326㎡ 1종일반주거지역 주위 식당성업종 투자적합
- ★ [건물] 광주 서구 동천동 동림2지구내 중심상권 아파트 병원 상가밀집지역 위치좋은 지하1층~지상7층 대지 602㎡ 건물 2,830㎡ 매매 55억 (보5억2천만 월2천4백20만 용25억포함)
- ★ [토지] 광주 북구 화암동 무등산공원내 담 1,700㎡ (도로점) 주말농장 및 농지원부 가능 매매가 상담후 결정
- ★ [건물] 광주 서구 매월동 자동차매매단지 옆 토지 5,359㎡ 건물 595,4㎡ 2층 공장 매매 평당2백5십만
- ★ [건물] 광산구 첨단롯데마트부근 지하1~7층 요양병원 대지 1,350㎡ 건물 3,943㎡ 보5억 월3천만 매매 60억 (협의가)
- ★ [토지] 전남 담양 용면 전원주택 조성단지 토지 8,324㎡ 보전관리지역 분할가능 실수요·투자가치 높음
- ★ [토지] 전남 봉산면 기곡리 광주에서 15분거리 1종일반주거지역 토지 2,045㎡ 카페, 커피숍, 전원주택부지 적합
- ★ [토지] 전남 나주시 노안면 장동리 계획관리지역 전, 담 34,085㎡ 분할매수가 매매가 상담후결정
- ★ [토지] 전남 곡성군 오산면 농동리 계획관리지역 전·대·임야 52,299㎡ 분할매수가 평당 4만5천 (협의가)
- ★ [토지] 전남 여주시 주삼동 대로점 초등학교옆 자연녹지 대지 9,157㎡ 아파트, 상가건물 신축 최상 매매 97억

공인중개사 김 재 훈 062-714-2251

배우면서 함께 일하실 공인중개사 구함